

全羅南道地域의 生活圏 및 中心地 體系의 變化 (1940年~1985年)

田 京 淑*

《目 次》

1. 序 變	(3) 醫療行態에 의한 生活圏의 變化
(1) 研究目的	(4) 農·畜·水産物의 出荷行態에 의한 生活圏의 變化
(2) 研究方法	(5) 通勤·通學 및 하숙·자취에 의한 生活圏의 變化
2. 研究地域의 概要	4. 中心地 system의 變化
3. 生活圏의 變化	(1) 1940年의 中心地 system
(1) 購買行態에 의한 生活圏의 變化	(2) 1965年의 中心地 system
1) 日常必須品	(3) 1985年의 中心地 system
2) 電氣製品	5. 結 論
3) 選好的 高級品	
(2) 慰樂行態에 의한 生活圏의 變化	

1. 序 論

(1) 研究目的

Christaller(1933)는 남부독일을 연구대상으로 도시의 입지와 발달에 관한 연구성과를 발표한다. 도시를 주변지역의 중심지로 규정하고, 중심지와 그 주변지역과의 의존관계를 추구하고 동시에 지역구조에 관한 이론심화에 관한 것이다. 그것은 중심지이론으로서 학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종래, 중심지와 주변지역과의 관계를 추구하고는 연구는 도시권, 상권, 통근·통학권, 도비공동권 등의 제연구에서 진행되었으나, 대부분이

중심지층에서의 연구이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층에서의 접근은 생활권, 생활행태, 소비자행태로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다.¹⁻⁶⁾

본 연구에서는 생활권을 「지역주민 일반의 평균화된 恒常的인 생활행태의 범위」라고 규정하고 구매행태 외에 의료·위락·출하·취학·취직 등 생활의 제측면을 통해 주민과 중심지와의 機能的 연계관계를 추구하고자 한다. 이 경우 단순히 한시점에 관한 고찰이 아니라 과거를 통한 변화를 추구는 시계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다.

생활권·도시권 등 초기의 연구는 하나의 중심지의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중심지이

*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 조교수

本 論文은 전남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한 것임.

- 1) 高野史男, 1962, “都市圏 패턴에 關する 地域構造論的 研究—東海地方을 例として—”, 愛知學藝大學 地理學報告, 19, 1-46.
- 2) 奥野隆史, 1969, “都市圏(生活圏) 設定에 關する一提言”, 地域開發, 56, 1-13.
- 3) 澤田清, 1968, “わが國における 商圏의 研究”, 東京教育大學地理學教室研究報告, XII, 185-202.
- 4) 西村睦男, 1965, “都市圏의 設定—商圏—”, 人文地理, 17, 565-586.
- 5) 小出武, 1953, “長野市の 生活圏係圈”, 地理學評論, 26, 145-154.
- 6) 小出武, 1963, “都鄙生活共同圏의 實證的 研究”, 地理學評論, 36, 559-565.

론의 발달과 더불어 중심지간의 諸관계에 중점을 두는 중심지 system으로서의 연구가 전개되고 있다. 중심지 system에 관한 연구에서는, stine(1962) 이후 정기시의 결절로서의 기능을 중시하여 定期市の 시공간적 특성, 제층적 구조를 주로 고찰하는 농촌 system(network system, solar system, dendritic system)과 근대적 도시 시설의 상호관계를 주로 고찰하는 近代的 도시 system 및 그 兩 system의 이행 과정에 관한 연구가 주요 과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⁷⁻¹¹⁾

일반적으로 농촌지역은 경제발전과 함께 정기시 system에서 근대적 도시 system으로 변화한다. 그 경우 완전한 이행이라기 보다는 兩 system이 혼재하는 system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필자는 그 兩 system의 혼재를 「혼합 system」이라 칭하였다.¹²⁾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서의 전남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권의 변화를 구명함과 동시에 중심지의 속성으로서의 정기시, 상설시, 근대적 도시시설간의 상관관계, 중심지간의 제층구조, 상호관계 및 중심지의 공간배치를 중심지 system이라 정의하고 정기시 system에서 근대적 중심지 system으로의 변화과정을 구명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이는 합리적 국토계획의 기본자료로서는 물론 충청북도 지역에서 밝힌 중심지 system의 변화 과정에 관한 모형의 일반화에도 큰 의의가 있다.¹³⁾

(2) 研究方法

변화과정을 추구할 경우는 과거자료의 정확한

파악이 큰 과제이다. 통계 등 諸자료가 완비되어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전쟁 등에 의해 우리나라는 1960年代 이전의 자료가 부족하다. 이 경우 과거의 자료를 구하는 하나의 방법이 설문지조사법이다. 설문지조사에 있어서는 우선 회답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나, 광복같이 일반적으로 기억에 남아있는 특정시기를 선정하여 신빙성을 높인 결과는 이미 발표되고 있다.

다음은 연구지역의 규모문제이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비교적 넓은 범위가 바람직하다. 이 경우 개인을 대상으로 하기는 불가능하다. Bracey(1953)는 목사를 그 지역주민 일반의 대표자로 선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주목할만한 결과를 얻었다. 그 이외에 목사 대신 국민학교장을 대표자로 하는 방법도 그 신빙성이 인정되었다.¹⁴⁾

본 연구는 과거의 상황에 관한 통계자료와 관계문헌의 부족, 연구지역이 면적 約 12,238.7 km²의¹⁵⁾ meso scale이라는 점에서 국민학교장을 그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대표자로 선정한 설문지 조사법을 주로 이용했다. 이와 같은 대표자 설문지조사법 외에 통계·관계문헌 등 諸자료와 현지조사를 병행했다. 1,222매의 설문용지를 1985년부터 1987년까지 4차에 걸쳐 배부하여, 45%에 이르는 534매를 회수 정리했다. 회수율은 낮으나 회담자가 연구지역에 균등분포하므로 지역분석에는 큰 문제가 없어 4차에 그쳤다.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시기구분 : 광복전(1940년)부터 현재(1985년)에 이르는 시기를 경제발전단계에 의해 구분

- 7) 田京淑, 1982, “定期市の 研究に 關する 小論”, 地理地叢, 23, 21-32.
- 8) Smith, C.A. ed., 1976, *Regional Analysis*. I·II, Academic Press, New York.
- 9) Skinner, G.W., 1964, 1965, Marketing and social structure in rural China,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24-12, 2, 3, 3-43, 195-228, 363-399.
- 10) Schwimmer, B., 1976, Periodic markets and urban development in southern Ghana, Smith, C.A. ed. *Regional Analysis*. I, Academic Press, 123-145.
- 11) Park, S.Y.,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Econ. Geog.*, 57, 113-126.
- 12) 田京淑, 1983, “韓國忠清北道地域に於ける 中心地システムの 變容にする研究”, 地理學評論, 56-57, 471-495.
- 13) 田京淑, 1983, 前掲論文.
- 14) 田京淑, 1982, “韓國忠清北道地域に おける 生活圏および 定期市の變容に關する 研究”, 地理學評論, 55-5, 292-312.
- 15) 1986년 11월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됨에 따라 12,023.6km²로 축소되었으나, 본 연구는 1985년 당시를 기준으로 하였다.

하여, 1940년경·1965년경·1980년경·1985년경의 4시기에 관한 변화를 고찰했다.

(2) 조사항목: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행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조사했다.

a) 구매행태—접근성(accessibility)에 지향되는 일상필수품(야채·생선 등의 식료품, 양말·속내의 등의 속옷류)의 구입과 선호성(selectivity)에 지향되는 고급품(의출용 가죽구두·의류, 귀금속 등)의 구입, 그 중간성격을 띄는 문화·취미용품(악품·화장품), 전기제품 등의 구입이라는 3지표를 선정했다.

b) 위락행태—다방·찻집의 이용과 보다 고차행태인 특별한 날 가족과의 shopping이다.

c) 의료행태—重病의 경우에 한정했다.

d) 농·축·수산물물의 출하행태—야채·곡류·달걀·가축·수산물 및 특산물의 출하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e) 통근·통학 및 하숙 행태—일상적인 범위인 통근·통학과 현지를 떠나 생활하는 보다 넓은 범위의 취직·취학으로 분류하여 고찰했다.

f) 버스교통—운행회수 및 소요시간.

g) 기타

2. 研究地域의 概要

全南地域은 한반도의 남서부에 位置하여, 바다에 면한 面積이 많으며, 수도 서울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 면적은 12,238.7km², 人口는 3,824,332명(1985년 현재, 이하 같음)이다. 行政區域上으로 보면 5市 22郡 29邑 199面으로 區分되어 있다. 치우친 位置 關係上, 과거에는 유배지로서의 낙후성을 면치 못했으나, 한편으로는 北方大陸과 남방왜구의 침입에는 비교적 안전하여 他地域에 비해 고유의 地域性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全南의 地形의 特色은 전반적으로는 東高西低型을 이룬다. 따라서 동쪽은 장수군과 진안군 경계의 八公山에서 발원한 섬진강수계가 좁은 분지를 형성하고는 있으나 1,000m 이상의 소백산맥이 높은 산지를 이루어 낮은 경지율, 낮은 土地生産性, 交通의 不便上 歷史的으로 장애요인이 되어 왔다. 분지상에는 곡성·구례·보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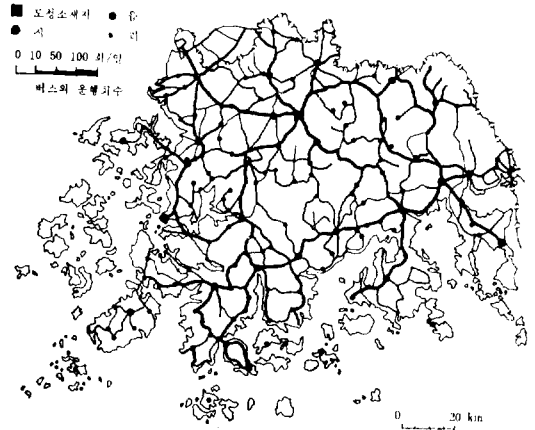


그림 1. 中心地의 分布와 버스交通量
研究地域을 통과하는 버스交通量은 제의

등의 소평야가 형성되어 있다.

서쪽은 노령산맥의 秋月山에서 발원한 榮山水系가 北에서 南으로 흐르며, 전남 전면적의 23%를 차지하는 전남평야를 이룬다. 예로부터 쌀·면화·누에고치의 3白生産地로 유명한 곡창지대로서 全南人口의 1/2 이상이 밀집되어 있다. 과거에는 한발·홍수의 피해가 심했으나 1976년 이후의 영산강개발사업으로 전천후 농업이 가능하게 되었다. 동부산지와 서부평야의 접촉지대에는 우리나라 제 5위의 대도시 광주가 위치하며, 서부의 영산강 하류를 따라 나주·영산포를 병합승격한 나주 및 호남의 문호 목포가 위치한다(그림 1).

북쪽은 노령산맥을 경계로 전북과 경계를 이루나 500m 내외의 낮은 山地로 연결되어 전남·북지방은 예로부터 湖南이라는 同一文化圈으로 취급된다.

南部海岸에는 간석지가 발달되어 있으며, 南西方向으로 分岐한 小白山脈의 지맥이 여러개의 半島와 多島海의 많은 섬을 形成한다. 이들은 원·근해 어업의 전진기지로서, 해조류·貝類의 양식어장으로서 利用된다. 여수반도에는 전라남 동부 지방의 농·수산물 집산지인 순천과, 무역항·어항으로 유명한 여수가 위치한다. 여수 서북쪽 16km지점에 위치한 三日港은 여천공업단지의 조성과 더불어 공업전용항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生活圈 및 중심지 system의 變化要因으로서는

經濟의 發達, 人口의 增加, 生活水準의 向上, 交通의 發達, 中心地의 成長, 政府의 政策, 都市群의 位置關係 等を 들 수 있다.¹⁶⁻²²⁾

우리나라는 1950年代까지만 해도 農業主體의 經濟地域으로, 農家人口의 比率이 60% 以上, 농업소득이 전체 GNP의 半을 차지하였다(紙面上 이하의 表 생략). 이와 함께 비옥한 논농사 지역인 전라남·북도보다 豊요로운 지역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1960年代를 기점으로 公業化가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農業의 상대적 비중이 1970年代에는 20%로 떨어져, 經濟構造가 農業中心에서 2차·3차 産業中心으로 變化되었다. 그 후 1970年代末 이후에는 灌溉시설의 增대, 土地改良, 多收穫品種의 개발, 商品作物의 장려 등 농업부분의 강화에 힘쓴다. 이러한 영향으로 소득부분에 있어서 지역적 변화가 나타난다.

1960年代 이후의 급속한 산업화, 公業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 農業경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전남지역은, 1960年代 이후의 농업근대화, 1970年代초 政府의 價格支援政策, 三毛作에 힘입어 農業粗所得이 增대되었다고는 하나, 他 지역에 비해 소득의 상대적 低下를 보여, 全國 平均에도 못미치고 있다. 이는 곡물중심의 비옥한 논농사지역이므로 과실, 야채 등의 商品作物 生産이 저조한 た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명·통신·농기계의 원동력인 農村電化率은, 우리나라에서 1965年의 農村電化事業 이후 계속 향상되나, 전남은 상대적으로 遅延을 蒙아 역시 全國수준에도 못미르고 있다. 한편 농가 소득에 직접·간접적으로 影響을 미치고 있는 交通에 對해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一般적 동향과 마찬가지로 本地域에 있어서도 道路 및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住民의 가장 대중적인 交通수단은 버스이다. 버스교통의 기반인 道路開 設 및 포장사업은 1960年代부터 行해지기 시작

해 1980年度부터 활발하게 추진된다. 그 결과 一般國道의 포장율이 1985年 현재 60%에 달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1960年代末부터 他地域 및 主要 大都市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고속도로의 建設이 시작되어 換金作物生産 農業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본 지역의 경우, 1970年代 이후 호남고속국도·남해고속국도(1973년)·88올림픽 고속국도(1984년)가 完공되기 시작하여, 영남지역 및 수도서울과의 소통이 원활해졌다. 특히 1986년에는 호남고속국도의 4차선화로 서울과의 시간거리가 3시간대로 단축되었다. 그러나 전남 지역의 도로포장율은 산간지역이 많은 경남·강 원도 지역의 수준에 미칠 뿐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의 經濟開發과 더불어 近代化가 촉진되어 소득·생활 수준·交通에 있어 급격한 進進을 나타낸다. 이 와 함께 本地域에서도 1960년대 이후 農業생산·생활수준 및 交通 部分의 향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비옥한 畝作地域인 전남지역은 所得·생활수준·交通面에서 相對적 低下를 나타내, 1980 년대에는 全國 平均 보다 낮은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한 點에서 전남지역은, 生活圈 및 中心地 system의 變化가 다른 地域에 비해 적은 地域이라 볼 수 있다.

3. 生活圈의 變化

生活圈의 變化에는 行態의 範圍擴大, 그에 따른 高次中心地 指向과 보다 低次中心地의 中心性의 縮小, 상실 등의 現象이 있다. 더우기 利用頻度의 增大, 減少도 나타나지만 本稿에서는 紙面上 前者를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1) 購買行態에 의한 生活圈의 變化

1) 日常必需品

16) Skinner, G.W., 1964, 1965, 前掲論文.

17) Berry, B.J.L., 1967,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Prentice-Hall.

18) 林英漢, 1975, “農村 service 中心地의 空間構造에 관한 研究.” 地理學, 11, 1-15.

19) Kelley, K.B., 1976, *Dendric Central-place systems and the Regional Organization of Navajo trading posts*, Smith, C.A. ed., *Regional Analysis*, I, 219-254.

20) Schwimmer, B., 1976, 前掲論文.

21) 權容友, 1977, “韓國都市의 地理的 變遷過程”, 地理學, 15, 57-73.

22) 澤田 清, 1978, 日本の 都市圈, 古今書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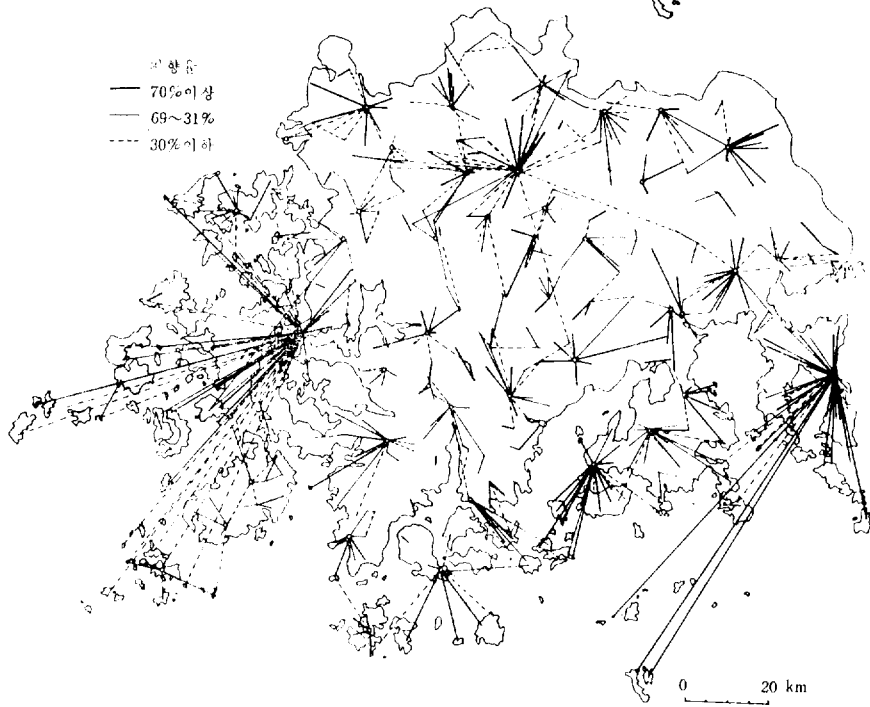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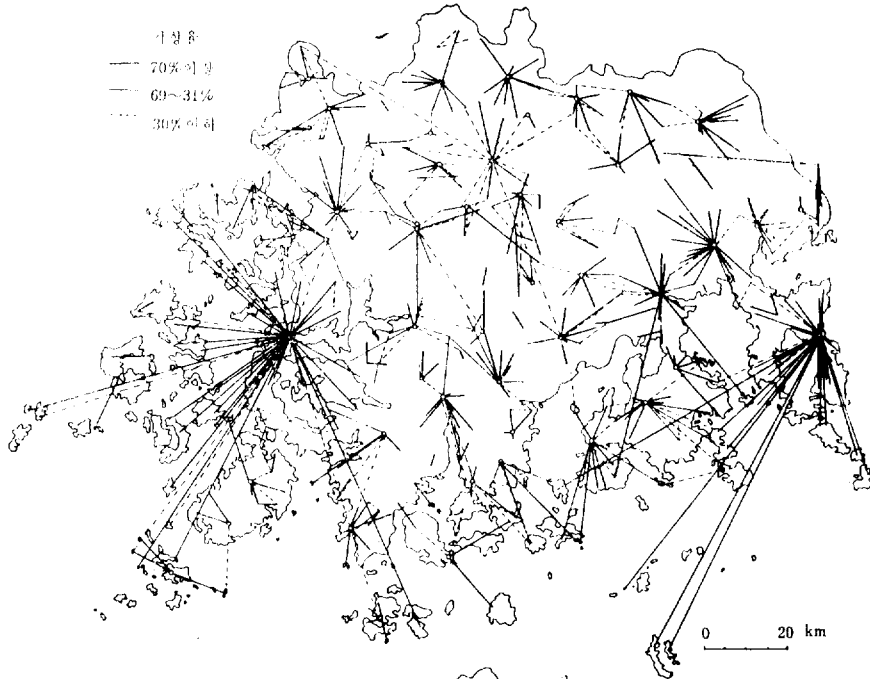


그림 2. 食料品の 購買行態에 의한 生活圏

70% 이상(굵은 실선) : 대부분을 指向(또는 이용·출하)하는 경우

31~69%(가는 실선) : 주로 指向하는 경우

30% 이하(결선) : 일부를 指向하는 경우

그림의 오른쪽은 경북 하동

이하의 生活圏 그림도 上記와 같음

식료품과 속옷류의 구입은 住民의 가장 基本的인 日常的 行態이다. 이러한 行態는 利用頻도가 높고, 근원의 저차중심지를 지향하며, threshold가 작은 것이 一般的이다. 野菜, 생선, 고기류 같이 新鮮度を 要하는 食品을 指標로 한 生活圏을 보면, 他指標에 비해 光復前(1940)부터 現在(1985년)에 이르기까지 큰 變化는 없다(그림 2). 그리고 後述하는 바와 같이 定期市가 重要的 役割을 담당한다.

多島海라는 全南의 特性으로 因해 周邊섬들의 中心地인 木浦와 麗水의 面的인 擴大가 두드러진 것을 제외하면 저차중심지와 고차중심지가 比較的 規則的인 配置關係를 보인다. 물론 時期別로 보면 高次中心地로의 指向範圍 및 지향을 그 增大가 나타나 現時點에서는 보다 高次中心地와 저차중심지 間에는 生活圏의 범위에 있어 다소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은 수시로 행하는 고차財貨의 구매행태가 증대됨에 따라 高次財의 구입시 저차재도 함께 구입하는 多目的 trip의 영향인 것으로 分析된다. 따라서 고차중심지 지향은 가끔 행해지는 行態가 大部分이다. 좀더 具體的으로 보면 高次中心地에 해당되는 光州, 木浦의 生活圏은 生活水準의 向上과 더불어 1980년까지는 범위, 特히 頻度の 擴大가 나타난다. 그러나, 1985년에는 보다 近隣의 低次中心地 成長으로 이들 上位中心地의 生活圏은 範圍의 縮小가 나타난다. 麗水의 경우는 1965년까지 頻度 및 範圍의 擴大가 나타나지만 1980년부터 다소 약화된다.

속내의, 양말 등 속옷류를 指標로 한 生活圏은 食料品의 경우 보다 範圍가 다소 擴大되고, 보다 高次中心地를 指向하는 것이 一般的이다. 그것은 日常必須品 中에서는 다소 選好的인 性格을 지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地域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속옷류도 식료품과 비슷한 生活圏을 形成하고 있다. 이것은 속옷류가 選好的인 性格을 아직 지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예는 忠淸北道地域에서도 報告된 바가 있다.²³⁾ 그러나 本地域에서는 最高次中心地인 光州周邊地域에서는 1980년부터 食料品 보다 頻度·範圍

귀에서 우위를 나타내는데 그것은 食料品은 自家生産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2) 電氣製品

오늘날, 電氣製品은 都市地域에서는 一般化된 商品이지만 農村지역에서는 아직도 選好品으로서의 性格이 강하다. 本地域에서도 10年 이상에 한번이라는 빈도뿐 아니라, 中心地에의 指向이 선호품으로서의 性格이 강하다. 그러나 후술하는 高級品 보다는 선호성이 약하므로 속옷류와 고급품과의 중간적 指標라 할 수 있다. 특히 光州로의 指向이 日常用品의 경우와는 달리 눈에 띈다. 高度의 經濟成長期인 1965年 以後에는 經濟發展을 반영하여 보다 高次中心地인 光州·木浦·麗水에의 指向이 증대되는데 특히 1980年 以後에는 光州의 優越性이 두드러진다.

3) 選好的 高級品

外出用 가죽구두·의류, 귀금속 같이 선호적인 고급품의 구매행태는 생활수준의 向上, 交通機關의 發達에 따른 時間距離의 단축에 의한 빈도 증대, 저차중심지에서 高次中心地로의 指向 등 變化가 현저한 指標라는 것은 一般的으로 알려져 있다. 本地域에서도 그와 같은 傾向을 나타낸다(그림 3).

1940년의 경우, 주민의 구매행태가 고차중심지로의 지향은 나타나지만, 어느정도 限定된 범위의 住民에 의한 行態였다. 그러나 1965年 以後 구매행태는 보다 活發해져 特히 光州로의 指向이 두드러진다. 1980年 以後에는 各 中心地에서 떨어진 地域에서도 行態가 시작된다. 木浦는 南西部의 섬을 중심으로 絶對的인 勢力圏을 形成하고, 光州는 交通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남부로 擴大되어 木浦와 競合을 한다. 이 경우 光州 指向의 行態는 가끔 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85년에는 광주가 계속 성장하여 木浦의 生活圏을 潛蝕하고 있다. 他地域과의 關係는 동부의 하동과 수도 서울에의 지향이 나타나지만 그 연계관계는 매우 미약하다.

구매행태가 活發해짐에 따라 그 利用施設도 變化한다. 光復前에는 日常用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급품의 구입도 정기시가 주체였다. 그

23) 田京淑, 1982, 前揭論文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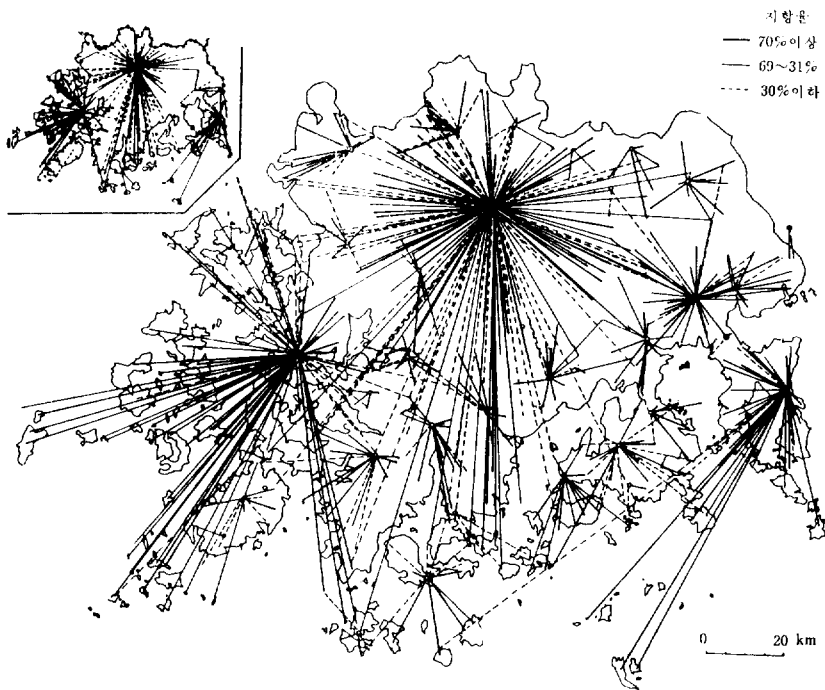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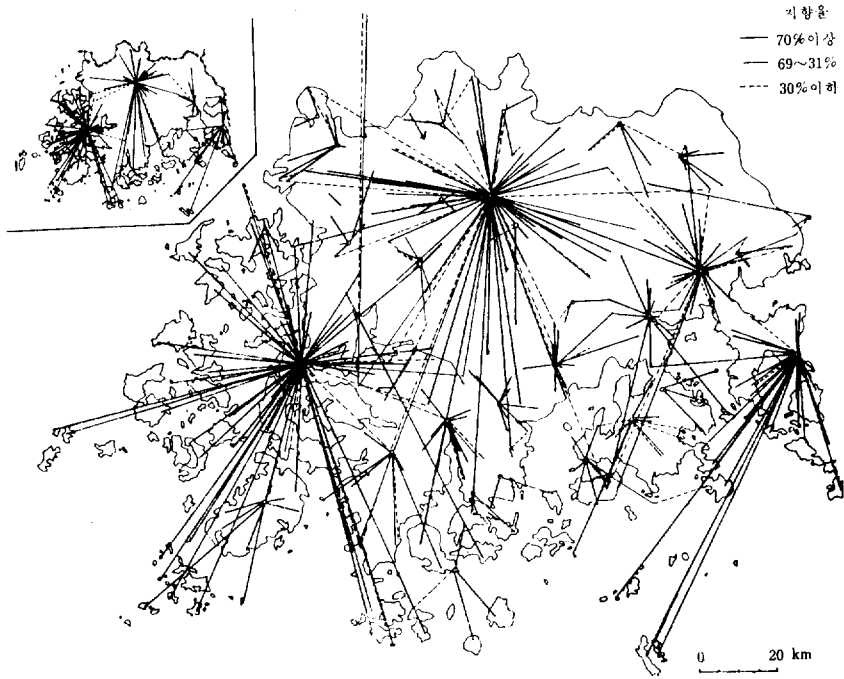


그림 3. 고급품의 구매형태에 의한 생활권
 좌측의 작은 그림은 상설시설의 이용만을 표시한 것임.
 左上은 서울.

러나 高次中心地에서의 商業機能이 商店街를 中心으로 質的·量的으로 增大됨에 따라 定期市의 指向에서 보다 近代化된 中心施設인 常設商店街로의 移行이 현저해지고 있다. 그러나 邑이하의 中心地에서는 아직도 定期市의 利用이 主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變化는 저차·고차중심지간의 계층구성의 變化를 야기하는 要因이라 볼 수 있다.

(2) 慰樂行態에 의한 生活圈의 變化

다방·극장 등 위락시설의 利用 또는 休日이나 특별한 날(生日, 結婚式 등)에 가족동반으로 外食을 하거나 shopping을 하는 등 즐기기 위한 慰樂行態는 여유있는 生活를 영위하게 됨에 따라 活發해진다. 本地域은 1980年代까지 住民의 半 程度가(1980年, 52.7%) 農民이며, 都市的 生活樣式의 보급이 미흡하고, 交通이 不便한 地域이 많으므로 1985년에도 慰樂行態는 活發하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극히 근거리에서 位置하는 定期市에 나가는 것이 주된 위락행태이고, 가족동반으로 都市에 나가는 위락행태는 결혼식 등 경사때 겸해서 나가는 경우가 大部分이다.

休日이나 特別한 날 가족동반으로 외식을 하거나 shopping을 하는 위락행태에 의한 生活圈은, 解放前에는 範圍, 指向率에 있어 中心地間에 큰 차가 없다. 그러나 高度成長期인 1965年以後 交通機關의 發達, 高次中心地에서의 近代의 都市施設의 整備에 따라 高次中心地의 優위성이 현저해져 1985년에는 고차·저차중심지간에 포섭관계도 나타난다.

이와 같이 위락행태는 1965年以後 다소 活發해지기는 하나 現在도 一般的인 行態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行態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時期에 중점을 두었다. 1940년에는 中心地에 近接한 극히 一部地域에서만 行態가 나타날 뿐이다. 즉 1940년에 慰樂行態를 한다고 應答한 聚落이 設問에 應한 全聚落(534)의 16.5%(88)에 지나지 않으며, 이들 聚落과 中心地간의 거리도 最高次 中心地인 光州圈이 平均半徑 2.8km, 最大半徑 6.2km, 邑指向行態는 平均半徑 1.4km 以內이다(그림 4). 1965년에 위락행위를 시작한 聚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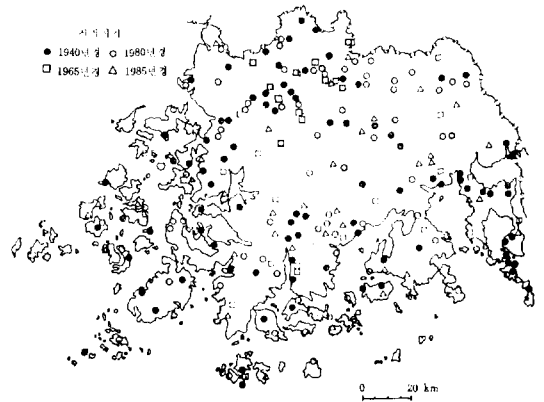


그림 4. 慰樂行態의 始作時期

數는 42(7.9%)로 그들 취락의 대부분은 光州를 指向하고 있다. 1980年以後에는 위락행태의 開始 聚落數가 더욱 增大되어 72(13.5%), 光州지향행태의 平均半徑이 3.8km, 최대반경이 12.2km, 읍의 경우가 平均반경 약 2km로 연장된다. 즉 중심지에서 떨어진 지역으로까지의 擴大를 의미한다. 그러나 1985年 現시점에서 44.6%(238)만이 행태를 하고, 各 中心地의 周邊部에 위치하는 約 55.4%는 아직도 위락행태를 할 정도의 수준에 달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는 주민생활수준의 향상은 물론 交通의 발달, 중심지의 成長이 중요한 要素로 作用하고 있음을 設問調査에서 把握할 수 있다. 즉 各 中心地로의 指向要因이 交通(57.5%), 施設(20.9)의 順으로 나타났다.

(3) 醫療行態에 의한 生活圈의 變化

의료행태에는 두통·복통 등 일상적으로 發生하는 比較的 單純한 경우와, 治療가 어려워 특수한 施設을 要하거나, 重病으로 입원할 경우의 2種類로 大別할 수 있다. 一般的으로 前者와 같이 간단히 治療가 가능한 경우는 가정상비약이나 약국을 이용하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행태를 中心으로 調査했다.

本地域에서도 他地域과 마찬가지로 전문적 기술과 특수한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의료시설은, 高次中心地에 主로 立地하고 있다. 또한 보다 高次中心地에 있는 의료시설은 주민의 신뢰도가 높다. 따라서 의료행태는 고차중심지로의

지향이 강하다(그림 5).

1940년에는 고차중심지인 光州, 木浦, 麗水, 順天으로의 지향이 강하고, 보다 低次中心地인 영광, 장성, 담양 등은 光州의 生活圈에 포섭되고 해남, 영암, 함평의 생활권은 光州와 木浦의 競合圈안에 포함된다. 이와 같은 구조는 各時

期別로 큰 차이 없이 기본적으로 지속된다. 그러나 고차중심지로의 指向, 特히 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춘 광주의 우위성은 보다 현저해지고 그에 근접한 보다 저차중심지의 生活圈은 縮小되는 傾向이 있다. 즉 1965년에는 光州, 木浦, 順天의 生活圈이 모두 擴大되지만 1980년 以後에는 光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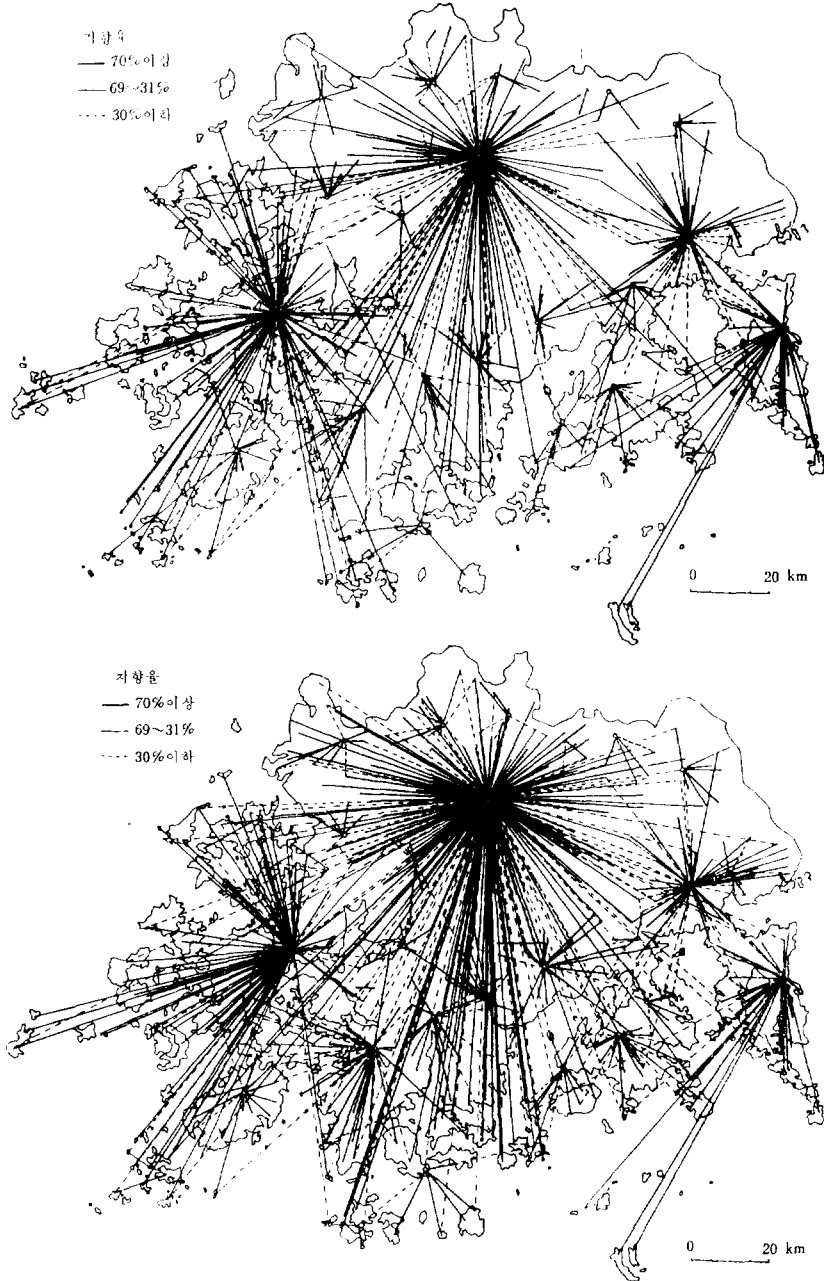


그림 5. 의료형태에 의한 생활권

가 木浦, 順天의 生活圈까지 潛蝕해가고 있다.

(4) 農·畜·水産物의 出荷行態에 依한 生活圈의 變化

전술한 바와 같이 本 地域은 住民의 大部分이

農業에 의존하는 농업지역이다. 따라서 生産을 위한 行態는 商·工業施設로의 통근 보다 農·畜·水産物의 出荷行態가 보다 重要하다. 農業地域에서 중요한 자산의 하나인 소, 돼지, 닭 등 가축의 出荷를 한 例로 보면, 指向率에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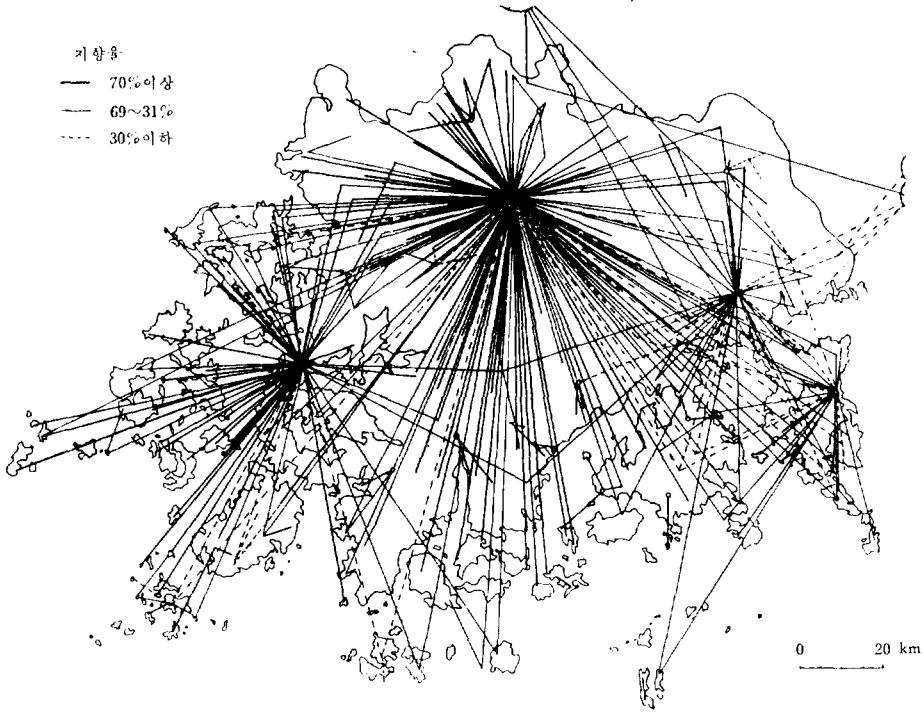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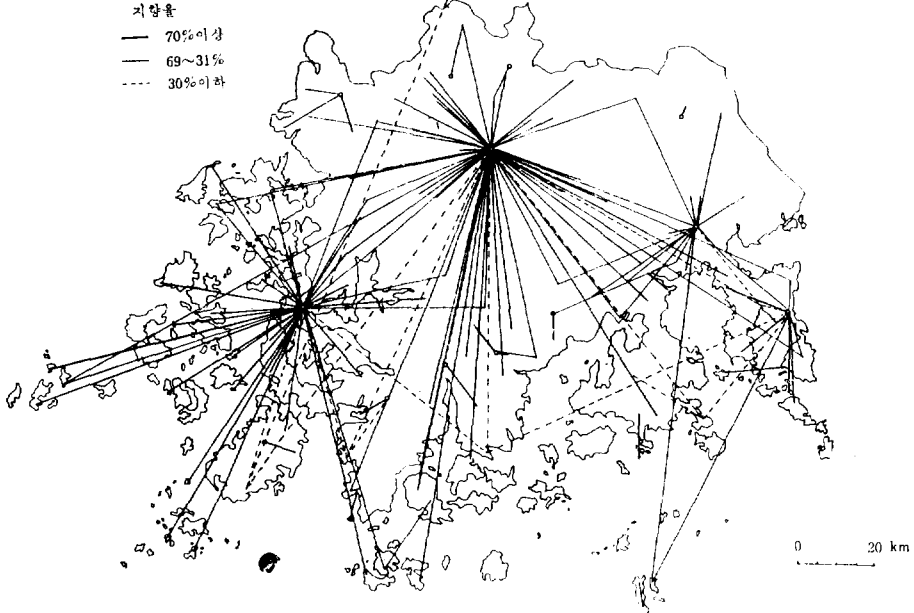


그림 6. 淸학·淸직처에 의한 생활권

서는 다소 미약하지만 1940년에는 多島海라는 特性을 반영한 북포, 여수의 面的인 확대를 제외하면 근린 중심지에의 지향이 지배적인 규칙적인 출하권을 볼 수 있다. 1965년 이후에는 약간 活發해지지만 식료품의 구매형태와 마찬가지로 큰 변화가 없다. 식료품의 경우와 다른 점은 本指標가 農村中心地 指向的이므로 가축시장, 일반정기시장으로의 지향이 두드러지고 고차중심지인 광주에의 지향이 확대되지 않는 점이다.

(5) 通勤, 通學 및 하숙·자취에 의한 生活圈

전술한 바와 같이 本地域은 典型的인 農業地域이며, 交通發達의 未備로 都市에의 通勤者가 매우 적다. 따라서 18歲 이하의 中·高等學校 中心의 通學圈, 취학, 취직처에서의 거주가 생활권의 변화를 잘 표현한다.

18歲 이하의 통근·통학은 전반적으로 順天에의 指向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木浦·麗水가 都市 機能上 또한 各 섬들과의 通勤·通學을 위한 交通이 不便한 대신, 光州, 順天이 教育都市로서의 性格이 강하기 때문이다. 年度別로 보면, 1940년에는 光州·木浦·順天에의 指向이 눈에 띄지만, 1965년 以後에는 光州와 近隣地域에의 指向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現象은 經濟의 發達과 더불어 教育機能이 보다 低次中心地에도 보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취학·취직처에서의 거주를 지표로한 生活圈을 보면, 1940년에는 光州, 木浦, 麗水, 順天에의 指向이 大部分이다(그림 6). 이것으로 이 시기에는 地域內 移動이 활발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高度經濟成長期인 1965년부터는 기타의 보다 低次中心地로의 指向도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고차중심지인 光州의 擴大는 계속되고 木浦의 相對的 減小가 나타난다. 特히 順天에의 指向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他指標와는 다른 독특한 양상이다. 이는 順天의 經濟的 機能 보다는 教育的 機能의 우위를 보다 잘 說明한 것이다.

4. 中心地 system의 變化

중심지 system의 分析은, 생활권의 분석결과

나타난 생활권의 범위, 생활행태의 지향물의 강도, 定期市, 常設市 및 도시시설의 상호의존관계를 기본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생활권의 분석 결과, 1980년과 1985년의 경우는 중심지에 있어 큰 변화가 없고, 농업의 近代化, 생활수준의 향상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중심지 system의 변화과정은 특징적인 1940년, 1965년, 1985년의 3시기에 對해 分析을 실시하기로 한다.

Christaller에 의하면, 중심지란 周邊地域의 中心點으로서 中心機能이 集中된 場所이며, 중심기능이란 모든 住民에 의해 보다 一般的으로 利用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심지·중심기능, 그와 관련된 중심지 system이란 時代, 地域에 따라 다르다. 本稿에서는 住民의 生活行態를 通해 中心地, 中心機能 및 그와 관련된 중심지 system의 변화과정을 추구하고자 한다.

(1) 1940년의 中心地 system

1940년 당시, 연구지역의 농가인구는 전인구의 80%정도를 차지하지만, 농업은 곡물을 주로 하는 自給自足生産이 中心이다. 그 결과 주된 생산활동인 농산물의 出荷行態는 近隣定期市에의 출하에 불과하다. 消費行態는 일상적 필수품을 구하는 低次段階의 行態가 中心으로 高級品の 구입 같은 高次段階의 行態는 限定된 行態였다. 이와 같은 생활행태는 定期市를 中心으로 이루어졌다. 정기시는 경제적 기능 뿐 아니라 사교, 정보교환의 장소로서도 기능하는 당시의 생활행태의 중심지였다. 더우기 정기시의 所在地에는 일반적으로 행정(도청, 군청, 면사무소의 소재지), 우체국, 재판소(지방법원, 지청, 출장소), 국민학교 등의 諸 中心機能도 집적되어 있었다. 이와같이 1940년의 중심지기능이란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service가 중심이므로 그 기능을 충족시키는 정기시 立地의 취락을 중심지로서 볼 수 있다. 이러한 중심지들의 계층구조는 다음과 같다.

고차의 중심지는 일반적으로 低次機能·高次機能을 동시에 갖고, 그 세력권은 범위가 보다 넓고 지향률도 높다. 중심지간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周邊의 低次中心地를 그 종속하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계층의 중심지로서는 光州(52,513

명), 木浦(59,832명), 麗水(24,289명), 順天(19,416명)의 4중심지를 들 수 있다. 이들 중심지의 중심시설인 정기시는 종합적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상설시의 입지도 나타나지만 이는 주민의 생활면에서 보면 정기시의 보조적 기능을 수행할 뿐이다.²⁴⁾ 더우기 이들 중심지에는 도청, 府廳, 군청, 우체국, 지방법원 및 지청, 금융기관, 중·고등학교 등이 입지하여 보다 고차의 행정, 교육, 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다.²⁵⁻²⁶⁾

光州는 1896년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분리됨에 따라 도청소재지로서 발달하기 시작한다. 1940년에는 府로서(1935. 10. 府로 승격) 行政中心地로서는 물론 독립병원, 지방법원, 사범학교, 세무소, 은행, 鍾紡공장 등이 입지하는 본 지역 最大의 都市이다. 또한 최대의 매상액을 갖는 대규모 정기시와 상설시(第2號 公設市場, 光州都賣市場, 魚菜市場)도 입지하여 他定期市로의 도매기능도 지니고 있다. 次下位中心地인 목포가 주변섬의 중심지로서 생활권의 공간적 확대가 현저하나, 보다 고차기능인 의료·행정 기능에 있어서 광주의 우위가 인정된다.

다음 계층의 중심지로서는 1877년 開港하여 湖南 第一의 貿易港으로 成長한 목포가 있다. 1914년 府로 승격한 이래, 府廳 소재지로서 행정의 중심지일 뿐 아니라 경제적 중심지로서의 성격도 지닌다. 大連, 上海, 日本의 各港口와 定期航路가 있으며, 나주평야 쌀의 집산지로서 무역고가 4,500萬~5,000萬圓/년에 달한다. 상인의 수(6,230명, 1938년), 제2호 공설시장 및 第3號 魚菜市場의 매상액(454,198圓, 203,838圓)에 있어서는 광주(2,980명, 210,661圓, 26,520圓)보다 우위에 있다. 그러나 재래시장의 경우는, 매일 開市되지만, 2·4·7·9日 開市되는 광주(1,966, 256圓)보다 매상액이 낮다(104,756圓). 기타 중심시설로서는 법원지청, 세관지서, 海軍出張所, 수산시험소, 무선전화국, 고등학교 등이 입지한다.

다음 계층에 속하는 順天, 麗水에 對하여 보

면, 여수는 하나의 어항에 불과했으나 건라선의 完工, 朝鮮鐵道の 부설과 더불어 성장한 新興都市이다. 무역고도 높은 商港으로 발전하여, 緞綿絹사소·수산물검사소·곡물검사소 등의 특수기관과 고등학교 등이 입지하고 정기시 외에 第2號 公設市場도 있다. 순천은 전라선, 경전선의 부설로 교통의 요지로 성장하여 物產의 집산이 성한 중심지이다. 정기시장 외에 제2호 공설시장, 군청, 법원지청, 곡물검사소, 철도지방사무소가 입지한다.

이상과 같이 4개의 中心地는 低次뿐만 아니라 中次·高次の 諸機能을 지니며, 勢力圈의 범위가 넓다. 또한 다른 정기시에 對해 도매기능을 지니며 주변의 저차중심지와 종속관계에 있다. 더우기 고차의 行政, 教育, 業務機能도 갖고 있으므로 이들 중심지를 高次中心地라 할 수 있다.

이들 고차중심지에 이어서 低次·中次·高次 中心機能을 지니는 中心地가 있다. 그러나 이들 中心地는 고차중심지 보다 세력권의 범위가 좁고, 중심지에의 지향률도 약하며, 고차중심지와 종속관계에 있다. 이들 중심지의 세력권 범위는 자연적·경제적 요인뿐 아니라 고차중심지와 위치關係도 크게 作用한다. 즉 光州에 近接한 長城, 潭陽, 松汀의 경우는 좁고, 광주에서 멀리 떨어진 海南, 長興 등의 세력권은 넓게 나타난다.

咸平, 旻光, 潭陽, 長城, 海南 등 19개 중심지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 중심지에 있어 주된 中心施設은 定期市이며, 郡廳所在地로서의 行政機能을 지니며, 고차중심지와 함께 綜合的 機能을 지닌 住民生活의 中心地이다.

다음으로는 저차·중차 기능 외에 고차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는 14개 중심지들이 있다. 이들 중 광역, 도화, 독천, 해제는 고급품 매매기능, 의료기능 같은 고차기능도 지니나, 次上位중심지 보다 세력권이 좁으며, 次下位중심지와 종속관계가 나타나지 않아 이 단계에 위치시켰다. 全南지역 외에 경상남도의 하동이 이 계층에 포함되고 있다. 주된 중심시설은 정기시이다.

24) 木浦市場의 경우, 「市場規則」에 따르면 在來市場에 속하나 매일 開市됨.

25) 文定昌, 1951, 朝鮮의 市場, 日本評論社, 104-107.

26) 朝鮮總督府, 1941, 朝鮮年鑑.

表 1. 中心地의 階層構成(1940년)

계층	中 心 地			主要中心施設	中 心 機 能
	地 名	行政單位	人口規模		
7	광주	府	(萬名) 5	상설시·정기시	고차기능·중차기능·저차기능
6	목포	府	6	상설시	고차·중차·저차
5	여수·순천	邑	2	상설시·정기시	고차·중차·저차
4	강진·고흥·곡성·광양·구례·나주·담양·별교·보성·중흥·영광·영산포·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	面(里)	1미만	정기시	고차·중차·저차
3	과역·도화·독천·해제 대덕·법성·병영·복내·신월·옥과·월평·창평(하동)·화순	面(里)	1미만	정기시	고차기능·중차기능·저차기능 고차기능의 일부·중차·저차
2	관산·괴목·금덕·나산·낙수·노화·석곡·신평·십일·울촌	面(里)	1미만	정기시	중차기능·저차기능
1	63개 중심지	面(里)	1미만	정기시	저차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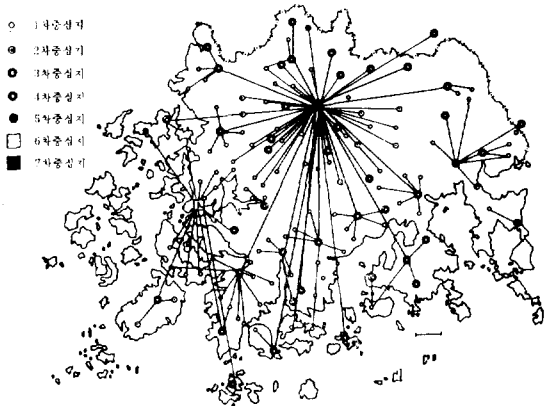


그림 7. 中心地의 分布(1940년)

次下位中心地로서는 저차·중차 기능을 지니는 10개 중심지가 있다. 이들 중심지에 있어서도 주된 중심시설은 정기시이다.

最低次의 中心地로서는 저차기능만을 지닌 小規模 定期市の 所在地가 있다. 63개 定期市所在地가 여기에 속한다.

이상을 통해 이 시기의 중심지 system의 性格을 다음과 같이 記述할 수 있다. ① 中心施設로서는 定期市の 役割이 매우 크다. ② 定期市를 主로하는 中心地間에는 7階層構造가 認定된다. 이들은 고차인 7차중심지에서부터 최저차인 1차

중심지로 位置시킬 수 있다. ③ 中心地의 勢力圈은 低次機能을 主로 하였으므로, 1日의 道보 왕복 可能범위(반경 6km)가 기본이고, 고차기능의 경우는 한정되어 중심지세력권의 범위는 局地的이다. ④ 중심지 system은 일반적인 近代의 중심지 system과는 다른 정기시를 主로하는 定期市 system이다. ⑤ 中心地의 勢力圈, 中心機能, 中心施設, 空間的 配置關係 및 중심지간의 종속관계를 통해 본 중심지 system은 表 1, 그림 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 1965년의 中心地 system(定期市的 混合 system)

1960年代의 經濟成長과 더불어, 농업·교통 등 주민의 생활기반에 있어 근대화가 진행되어 주민의 생활행태가 보다 活發해진다. 그에 따라서 고차중심지에서는 常設市, 都市施設(商店街, 銀行, 病院, 醫院, 高等教育機關)이 증가되어 定期市는 그 기능을 相對的으로 弱화시키기에 이른다(表 2). 그러나 저차중심지에서는 逆으로 定期市の 機能을 強化시킨다. 이와 같이 정기시는 中心地의 계층에 따라 多樣的 變化를 나타낸다.

다음으로 정기시시스템(1940년)의 1965년에 있

表 2. 都市施設의 變化

시설수	年	1960年代(1964)	1980年	1985年	비	고
경 화 관		84(1966)	51	67		
의 료 시 설		654	672	1,406	종합병원, 개인한의원, 특수포함	
은행(협동조합포함)		44	127	152		
대 형 백 화 점		2	17	17	대형백화점·슈퍼포함	
대 학		4	21	23	2·4년제	
국 민 학 교		729	1,012	982	분교는 제외	
중 학 교		118	289	312		
고 등 학 교		63	149	183		

資料: 전남통계연보, 전남교육통계연보

어서의 變化를 추구하기로 한다. 이 시기에 있어 7차중심지로서의 光州(403,495명)는 前期에 비해 勢力圈의 範圍擴大와 中心地의 指向率 強化 및 中心施設의 變化가 나타난다. 즉 食料品, 電氣製品의 구입 같은 低·中次機能에 있어서는 범위 보다는 지향율이 강화되고 高級品の 구입, 위락행태를 指標로 한 경우는 지향율의 상승과 더불어 범위의 확대가 나타난다. 특히 의료기능의 범위는 거의 전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심시설은 종래의 정기시 중심에서 상설시 또는 도시상업시설로의 대체가 나타난다.

Skinner는 근대화로의 移行이란 定期市의 特性인 생산자점 판매자라는 상태의 소실, 자금자족의 저하, 전문화 등이라고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觀點에서 광주에 영화관, 대형백화점의 입지와 가축의 출하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근대화의 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차하위 중심지인 목포(162,166명)의 경우는 指向率과 범위의 증대가 나타나지만, 보다 고차기능인 高級品の 경우, 여전히 定期市가 主要 中心施設이다. 그것은 木浦가 보다 빈곤한 섬지역 주민에게 service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끔 행해지는 行態가 주가 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위락행태의 경우는 큰 변화는 없으나 고급품의 구매행태와는 달리 상설시설의 이용이 두드러진다.

5차중심지로서의 順天(79,293명), 麗水(101,851명)는 세력권의 범위에 있어 큰 차이는 없다. 그것은 보다 고차중심지인 광주의 성장과 더불어, 새로이 증대된 행태에 대한 기능을 흡수하지 못한 탓이다.

4차중심지로서의 邑級中心地를 보면, 세력권의 범위는 주민의 생활활동이 활발해짐에도 불구하고 세력권의 범위에 있어서는 前期와 큰 차이는 없다. 보다 고차기능의 증대는 광주에 그 기능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이다. 저차기능인 식료품, 가축을 지표로 한 기능은 정기시를 中心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고차기능 중 외식의 경우도 다소 강화되나 여전히 상설시설의 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前期와 큰 차이가 없다.

1차중심지는 여전히 低次段階의 經濟, 教育機能을 주로 하는 定期市의 所在地이다. 따라서 세력권의 범위는 종전과 거의 같게 협소하다. 더우기 이 시기에는 住民의 수요가 증대되나 저차기능도 고차중심지에 흡수되어 보다 고차중심지에 근접한 것은 그 기능을 상실한다. 반면에 경제성장과 더불어 종래의 중심지와는 공간적 배치, 정기시의 開市日에 있어 경합을 피하면서 신설의 정기시도 나타난다. 이들 정기시는 기능상 둘로 구분된다. 기존의 중심지에서 소외된 육지의 말단부나 섬지역에 위치하는 경우는 보다 넓은 세력권을 형성하나, 대부분은 圖上에서는 表示되지 않을 정도의 좁은 범위에 대해 저차기능을 제공한다.

이상에서, 1940年과 比較한 이 시기의 中心地 system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① 中心地에 있어서 施設의 變化가 나타난다. 즉 7차중심지에 있어 近代의 都市施設의 增大와 함께, 한편에서는 定期市의 數가 增大한다. 이 新定期市의 所在地는 대부분이 1次中心地에 해당된다. ② 中心地勢力圈의 範圍는 1940年의 徒步中心의 局地

表 3. 中心地의 階層構造(1965년)

구분 계층	中 心 地		中 心 施 設	中 心 機 能
	地 名	行政單位 人口規模		
7	광주	市 (萬名) 40	도시시설·상설시·정기시	고차·중차·저차
6	목포	市 16	도시시설·상설시·정기시	고차·중차·저차
5	여수·순천	市 8~10	도시시설·상설시·정기시	고차·중차·저차
4	강진·고흥·곡성·광양·구례·나주·남양·별교·보성·송정·영광·영산포·영암·완도·장성·장흥·진도·함평·해남·화순	邑·面 (里) 1~5	도시시설·정기시	고차·중차·저차
3	과역·금일·노화·독천·법성·산정·해례 괴목·(남원)·능주·득량·마량·복내·사가·신원·신호·옥과·월평(하동)	面(里) 1미만	정기시	고차·중차·저차 고차기능의 일부·중차·저차
2	금덕·나산·낙수·사평·석곡·석북·십일·약수·오일·울촌·이양·지도	面(里) 1미만	정기시	중차·저차
1	82개 중심지	面(里) 1미만	정기시	저차

的 Scale에서 bus交通을 주로 하는 地域的 Scale로 擴大된다. ③ 7차중심지에서는, 都市施設이 주된 中心施設로 되고 定期市는 高次機能을 상실하여 저차기능을 분담하는 기능의 分化가 나타나, 통상의 中心地로의 移行이 나타난다. 그러나 4차 이하의 중심지에서는 정기시의 기능이 강하게 잔존한다. 따라서 이 시기에 있어 중심지 system은 定期市的 混合 system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結果는 表 3과 그림 8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1985년의 중심지 system(都市的 混合 system)

1985년에는 고차중심지에의 지향이 한층 고조되어 고차중심지에서는 근대적 도시 시설의 충실, 특히, 의료시설, 은행, 백화점의 증대가 나타난다. 중심시설면에서 보면 근대화의 물결이 농촌 지역에도 확대되어 도시적 생활의 침투가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는 1960년대 이후의 급속한 공업화에 따른 근대화 및 고도의 경제성장과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중심지의 기준도 과거와는 달리 중차기능까지 만족시키는 것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의 특징은 중간계층 이하의 중심지는 여전히 전근대적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중·원거리간 고차중심지를 연결하는 직행버스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전기제품의 구입, 위락·문화시설의 이용 등, 고차단계의 행태가 한층 활발해진다. 그 결과 저차 기능을 주로 담당하던 정기시는 수적 감소와 함께 기능의 상대적 쇠퇴가 나타난다. 그러나, 현재도 정기시는 농촌지역에 있어 저차 단계의 주요 중심시설로서, 도시화된 고차 중심지에 있어서도 근대적 도시 시설과 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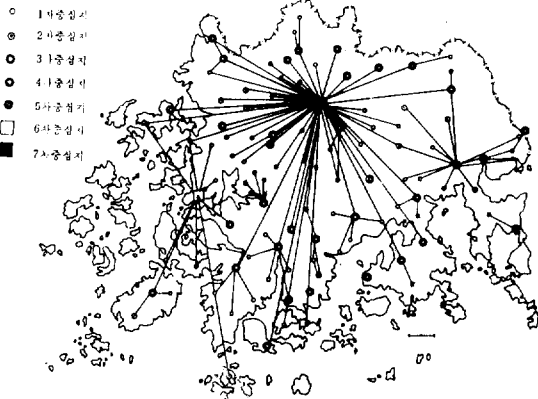


그림 8. 中心地의 分布(1965년)

存의 형태로서 共生하고 있다.

다음으로 계층별로 본 1985년에 있어서의 중심지 system의 1965年 이후의 변화를 기술한다. 광주 는 도청소재지로서 경제·문화·행정·교육 등 다방면에 걸쳐 도시적 기능이 집중되고, 소비자와 중심지와의 시간거리를 단축시키는 시내버스, 직행버스, 고속버스 등의 교통 중심지로 되어 지역 중심도시로 성장한다. 따라서, 세력권 범위, 지향물의 강도, 저차 중심지와의 종속 관계에 있어 다른 중심지와의 차이가 더욱 명확해진다. 일상적 저차기능을 분담하는 상설시도 19개로 증가되고, 보다 고차기능을 수행하는 상가, 백화점, 의료시설 등도 증가되어 중심성 지수를 지표로 양대수 graph를 그려보면 1965年과는 달리 이 지역의 최상위 중심지로서 명실상부한 기능적 차이를 나타낸다(圖 생략). 그러나, 아직도 원거리 농촌 주민은 과거의 정기시에 맞추어 활동하고 있어, 정기시의 잔재를 엿볼 수 있다.

4차 중심지인 목포는 치우친 지리적 위치상 생활권의 확대가 제한되고, 고차적 기능의 빈약함도 첨가되어 광주 보다 발전이 뒤져 그 세력권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고차 기능인 고급품 구입, 병원 이용 행태의 경우, 세력권의 범위 및 중심지에의 지향물에 있어 광주에 잠식되어, 1965年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물론 중심시설의 충실화와 함께 정기시의 기능은 미약하다.

3차 중심지인 순천·여수의 경우는 여전히 큰 변화없이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하고 있다. 여수는 여수공업단지의 조성파 더불어 고용증대에 따른 하숙·통근의 증대를 예상할 수 있으나, 연구결과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 이것으로 공단의 조성이 아직 이 지역 주민의 생활 행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순천은 역사가 오랜 도시로서, 여수보다도 통근·통학 및 하숙에 있어 높은 기능을 보유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2차 중심지는 행정적으로는 군청소재지이며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지만, 고차중심지의 성장과 더불어 고차 중심지와의 종속 관계는 한층 명확해진다. 보다 고차기능에 속하는 병원의 지향물은 증대되나, 외식의 증대는 거의 없다. 중

심시설에 있어서도 고급품, 외식의 경우 여전히 정기시가 주요 이용시설이다. 따라서 근대적 도시 시설과 정기시가 공존하고 있다.

최저차 중심지로서는 1965年의 3차, 2차 중심지가 해당된다. 저차·중차기능을 주로 하는 정기시 중심지로, 종전과 큰 변화는 없으나 도시 지역에서는 그 기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식료품 구입, 가축 출하, 중·고등학교의 통학은 원거리 이동이 불편하므로 말단부의 주요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한편 前期의 1차 중심지는 중심기능의 성장이 없이 저차기능만을 제공하므로 중심지를 보완하는 準1차 중심지에 위치시킨다. 정기시를 중심으로 소규모 세력권을 형성하며, 행정같은 기타의 중심기능은 거의 없으므로 1차 중심지 보다 낮은 불안정한 중심지라 보고 準1차 중심지라 명명했다.

이상의 고찰에 의해, 본 지역에 있어 1985年의 중심지 system은 5계층으로 형성된다(表 4, 그림 9). 즉, 5차의 지역 중심지로서 광주, 상위지구 중심지로서 4차의 목포와 3차의 여수·순천, 2차의 하위지구 중심지로서 읍수준의 중심지, 그리고 최하위 1차의 촌락 중심지로서 면수준의 중심지가 있다. 또한 중심지를 보조하는 저차기능 중심의 準1차 중심지도 있다. 이들 계층 중 1차 중심지를 제외한 각 중심지는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의료시설, 금융기관 등 도시적 시설이 입지하여 고차기능을 지닌다. 그러나 수적인 면에서 90%가 넘는 2차 이하의 諸 중심지에서는 저차·중차기능을 분담하는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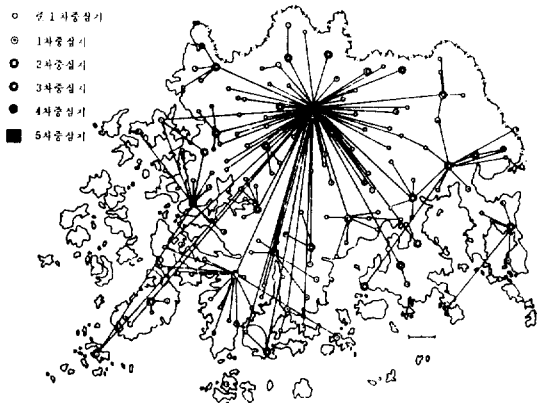


그림 9. 中心地의 分布(1965年)

表 4. 中心地의 階層構造(1985년)

구분 계층	中 心 地			中 心 施 設				中心機能
	地 名	行政單位	人口規模 (萬名)	의 료	금 용	교 육	상 업	
5	광주	市	90	종합의료 3차진료	233	대학교	백화점 대형수퍼마켓 중심상점가 상설시 (7812)*	고차 중차 저차
4	목포	市	24	병 2차진료	52	대학교	중심상점가 상설시 (3766)	고차 중차 저차
3	여수·순천	市	17~12	병 2차진료	24~15	대학교	중심상점가 상설시 (2972~136)	고차 중차 저차
2	강진·구례·고흥·곡성·과역·광양·금성·담양·도양·무안·별교·보성·송성·영광·영암·완도·장성·장흥·함평·해남·화순	市·邑	1~6	의 1차진료	21~1	고등학교	상가 상설시 정기시 (1~57)	고차 중차 저차
1	관산·괴목·금일·남창·노화·능주·괴목·금일·남창·노화·법성·병영·복내·사신·삼일·석목·섬서·신촌·오일·용산·울어·울지·이양·일로·조도·대덕	邑 面(里)	1미만	의 1차진료		중학교	상설상점 정기시	중차 저차
準1	86개 중심지	面(里)	1미만			국민학교	정기시	저차

* 도·소매업 상점수

적 정기시가 잔존한다. 물론, 그 기능은 중심 기능의 전체적인 면에서 보면 보조적 기능체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중심지로 이행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차 중심지 및 준 1차 중심지는 정기시를 중심으로 농촌적 요소가 강하다. 따라서 1985년에 있어서, 본 지역의 중심지 system은 정기시 system에서 통상의 중심지 system으로 이행하는 혼합 system중, 후자의 system이 우세한 도시적 혼합 system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충청북도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1980년의 system이 도시적 혼합 system이라 명명되었으므로 비교를 해 보면, 충북의 경우는 면적상 소단위지역이며, 근년 생활 수준의 향상이 현저히 증가된 지역이다. 이에 반해 전남은 근년의 발전이 늦고, 지역 면적이 넓으며, 또한 다도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전남은 고차와 저차 중심지들 간의 차이가 심하다. 예를 들어 광주는 우리나라 제 5위의 도시로서 고도의 도시화가 진전된 도시이다. 반면 섬지역은

아직도 경제 수준이 미약하여, 근대화의 과정에 있다기 보다는 전근대적인 정기시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도시적 혼합 system이라 해도, 전남은 충북에 비해 상위중심지는 고도로 근대화가 진전된 반면, 농촌 말단부에는 아직도 기능상 중심지라 할 수 없는 준중심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5. 結 論

우리나라는 1960年代 以後 신흥공업국으로서 급성장하여 농촌지역에서 도시적 기능지역으로의 變化가 현저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지역을 사례지역으로 하여, 1940년부터 1985년까지를 경제적 발달단계에 따라 4時期로 區分하여 생활권 및 중심지 system의 변화과정을 구명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복전(1940년), 농업을 주로하는 본 지역은 교통의 미발달, 전근대적 농업생산, 낮은 생

활수준 단계에 있었다. 주민의 생활행태는 일상적이며 필수적인 저차단계의 행태를 주로 하고 있었다. 도보중심이였으므로 빈도가 낮고, 행태 범위도 좁은 국지적 Scale의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었다. 생활행태는 정기시를 중심으로 행해져 정기시가 결절점(중심지)으로서 기능했다. 이 시기를 농촌(정기시) system시기라 명명했다. 정기시를 주로하는 이 시기의 중심지는, 세력권의 범위, 기능상 7계층으로 분류된다. 즉 도매기능 및 저차·중차·고차기능을 갖는 상설시와 정기시 중심의 7~5차 중심지, 저차·중차·고차기능을 갖는 정기시 중심의 4차중심지, 고차기능의 일부와 중차기능을 갖는 정기시 중심의 3차중심지, 고차기능이 결여된 2차중심지, 저차기능만을 갖는 정기시 중심의 1차 중심지이다. 따라서 생활권 및 중심지 system의 scale은 도보에 의한 저차행태를 주로하는 국지적 system이다.

2. 經濟成長期인 1965년은, 생활수준의 향상, 버스교통의 발달, 근대적 도시시설의 증대가 나타난다. 그 결과 주민의 생활행태는 활발해지고,

가끔 행해지는 選好的 行態의 증대도 나타난다. 중심지에 있어서는 7차~6차 중심지의 세력권 확대, 중심지로의 指向率 증대가 나타나 생활권 및 중심지system의 scale은 局地的 scale에서 地域的 scale로 확대된다. 한편 기존 중심지와와의 時間的·空間的 競合을 피하며 新定期市가 출현해, 定期市의 활동이 前期 보다 활발해진다. 고차중심지에서는 전통적 정기시에 근대적 도시시설·상설시가 추가되어 三者가 共存한다. 이와 같이 정기시 system중에 근대적 중심지 system으로의 移行이 나타나므로 이 시기의 중심지 system은 定期市의 혼합 system이라 명명한다.

3. 고도경제성장기를 지난 1985년의 경우는 생활수준의 향상 및 버스교통(시내버스·직행버스·고속버스)의 현저한 발달이 나타난다. 이와 함께 생활행태는 위락행태 같은 보다 고차단계의 행태도 활발해지고, 고차중심지로의 지향은 보다 강화된다. 그러나 하위중심지의 미성숙으로 중심지의 계층구조는 7차에서 5차로 변화된다. 최상위인 5차중심지는 보다 고차기능의 집적으로 4차중심지의 기능까지 잠식하면서 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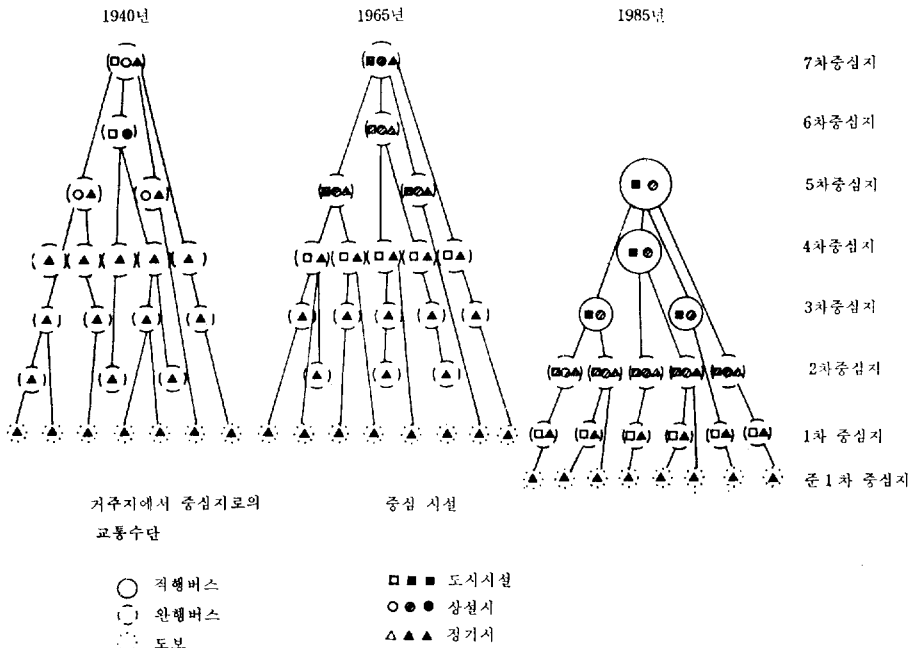


그림 10. 全羅南道地域의 中心地 system의 變化過程 模式圖

中心機能을 제공하는 各 中心施設 中, 검게 칠한 것은 主로 이용, 흰것은 이용도가 낮은 것, 회색은 그 중간정도의 이용도를 나타냄.

역에 대해 service를 제공한다. 4차·3차 중심지는 근대적 도시시설이 확충되나, 고차기능에 있어서도 遠거리지역 주민의 행태는 여전히 定期市的 要素가 잔존한다. 2차중심지의 경우는 고차기능도 정기시를 중심으로 행태가 이루어지며, 1차 중심지에는 중차·저차기능 중심의 定期市가 입지한다. 한편 저차기능만을 담당하는 정기시 소재지는 준 1차 중심지로서 기능한다. 前 시기에 숫적 증대를 나타내던 전통적 정기시는 쇠퇴하여 도시시설이 주민의 생활행태의 중심으로 된다. 그러나 정기시의 기능이 잔존하

며, 특히 1차 중심지에서는 여전히 정기시 system의 특징을 나타내므로 이 시기의 중심지 system은 都市的 混合 system이라 명명한다.

4. 중심지 system의 變化過程은 그림 10과 같이 모형화할 수 있다. 농촌지역에서 도시적 기능지역으로의 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중심지 system도 또한 변화한다. 그 변화과정에서는 본 지역에서와 같이 완전한 이행이 아니라, 兩者의 混在가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지역에서 중심지 system의 모형화는 그 일반화의 1유형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

A Study on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Activity Space and the Central Place System in Cheollanam-do, Korea

Kyung-Sook Jeon*

Summary

The aim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changing processes of the sphere of activity and central place system, focusing mainly on the coexistence of the periodic market system with the urban system in Cheollanam-do. Since the 1960s, this area has changed from a rural area to an urban one.

This study is based on questionnaire and field survey methods. Information on the personal behavior in the community was provided by a headmaster of an elementary school there. I selected four periods to represent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1940, 1965, 1980 and 1985. Items of questionnaire include the following five factors of personal behavior:

Shoppings, entertainment trips, use of medical facilities, shipments of agricultural, livestock and marine products, and commuting and lodging.

In an analysis of the central place system, I selected three periods (1940, 1965, 1985) to represent the remarkable changes in accordance with 1) development stages of agricultural modernization, 2) elevation of the standard of living, 3) development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and 4) sphere of activity.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sphere of activity defined by such indicators as the purchase of speciality goods and entertainment trips, have changed remarkably

and the orientation of behavior has also changed from lower-ordered centers to higher-ordered.

2. The sphere of activity, defined by lower-ordered indicators such as the purchase of perishable goods and underwear, and the shipment of agricultural products have slightly changed. The sphere of the use of medical facilities, one of the higher-ordered indicators, has also slightly changed. The sphere of the purchase of electric goods, one of the middle-ordered indicators, has changed to an between two above-mentioned indicators.

3. In 1940, a center with a periodic market played a role as a central place, because the periodic market was a focus for the personal behavior. We could then see a periodic market system as a kind of central place system; the central place hierarchy consisted of seven levels. The seventh and sixth-ordered center had a daily fixed market with wholesale function and a periodic market.

The fifth to the third-ordered centers had a periodic market with higher-ordered functions. The second-ordered center had a periodic market with middle-ordered functions, and the first-ordered center had a periodic market with only lower-ordered functions.

4. In 1965, the central place system was characterized by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periodic markets, and the appearance of modernized urban establishments (shopping streets, theaters, medical facilities, etc.) These two

*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College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eatures were somewhat contrary to each other, but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them. We can see the transitional tendency from the periodic market system to the urban system in this period. I named this 'compound system of periodic market and urban establishment'.

5. In 1985, the periodic market was attenuated because of the continuous increase in urban establishments. The central place system evolved into an urban system, but the periodic market functioned at the level of the first and second-ordered centers. So we can label it an urban system with periodic market. The Central place hierarchy is replaced by five levels instead of

the above seven levels. The previous fourth and third-ordered centers with higher-ordered functions are replaced by the second-ordered center, and the previous second-ordered center with medium-ordered functions are also replaced by the first-ordered center. The quasi-first-ordered center with a periodic market which has only lower-ordered function was replaced by the previous first-ordered center.

6. From the above mentioned analysis, we can make a model for the changing process of the central place system in this area as shown in Fig. 10.